

금융산업과 IT



이준상 현대정보기술(주)/상임고문

요즈음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많은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금융은 경제시스템에서 자금의 순환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경제단위의 지불수단과 자금의 수요 공급을 담당하는 제일금융권이나 지급결제 관련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문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편,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IT 부문에 예산, 인력, 시간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제일금융권이 시도하는 정보기술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 원인이나 경과를 여기서 일률적으로 거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리한 개발 목표나 일정의 설정,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성

약력 : • 78~99 외환은행 신 종합전산시스템 개발총괄 전산개발실장 정보시스템부장 대전지점장 • 현재 현대정보기술(주) 상임고문,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금융관행들이 경시 및 간과된 일은 없었는지, 또는 외국산 Banking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 (속칭 IMF), 경제구조조정 등 격랑을 거치는 과정에서 직면한 특별한 상황들, 예를 들어 외부 컨설팅 결과의 과신 또는 피할 수도 있었던 시행착오 등, 다각적으로 Review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기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우선 금융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영전략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목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지켜야 한다.

첫째, 불특정 다수 고객의 귀한 재산을 위탁받아 최선의 관리를 해 주어야 하므로 경영상의 수익성 추구에 앞서 공공성, 공정성, 안전성을 중시할 것.

둘째, 대 고객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것.

셋째, 정보시스템이 일상업무는 물론 경영전략, 고객 관리에도 중요하게 사용될 것.

여기서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자금과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첫째,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둘째, 대 고객관계 관리 및 서비스 향상

셋째, 새로운 상품의 개발

넷째, 생산성 향상 및 코스트 절감

다섯째, 경영정보의 활용 과 경영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은행권에서 현재 가동중인 기간 시스템들은 대부분 19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에 개발 완료되어 십 수년간 사용되어온 것들로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라이프 싸이클을 훨씬 넘긴 상태이다. 더욱이 이기간 동안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이버 기술 등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지속되었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환경 측면에서도, 외환위기와 금융 국제화, 자율화, 구조조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 등 100여 년의 한국 금융사에 초유의 충격과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의 발달, ATM을 비롯한 자동화기기 확대,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 시스템의 발달, 증권시장의 국제화, 선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의 발달 등은 정보시스템 담당자들에게 긴급한 요구와 다양한 금융여건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부분적인 개편, 기능 추가 등 임시방편적 조치들이 불가피하였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정보시스템이 여기 저기에 짜깁기 자국이 있는 누더기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기간시스템의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전통적 금융체제와 국제화된 금융환경 및 첨단 기법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종합 금융정보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그 특성상 연구기관, 대학교, 일반기업 등의 경우와는 다른 면이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영전략 및 시스템 개발목적에 적합하도록, 첨단 금융기법과 정보기술을 최대한 도입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은 첨단 기술이나 S/W 신기법 등의 전시나 임상실험, 외국산 신제품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혹시, 연구대상이나 시범 프로젝트적 경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우리 금융관행에 적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 시스템 구축에 앞서 경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와 조직의 개혁, 부문별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정보 시스템이 과거에는 폐쇄적 구조로 되어있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비교적 안전하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인터넷 뱅킹, 전자금융 공동망, 뱅킹 포탈 등의 채용으로 시스템의 대외적 노출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비스의 확대에 못지 않게 바이러스나 해킹 등 고의적 침투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안의 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